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 창조

발행일 2012년 11월 8일 (목)

발행인 이종헌 편집 김종성

주 소 (705-803) 대구 남구 대명동 447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 I 이달의 소식

1. 대구지부 연말모임 안내 1쪽

## II 내용

1. 노아의 홍수 (63) 여전히 땅에 충만하라 - 이재만 2쪽  
2. Victor's Bible Journey (42) 해와 달이 아얄론에 머물다 - 이종헌 역 4쪽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28) 다윗언약 - 김무현 7쪽  
4.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동물 프레리도그 - 대구지부 11쪽

## 인 사 말



추워져 가는 가을날에 실직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축해둔 돈을 의지하거나 나를 도울 사람을 찾거나 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바랄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해 봅니다. 요즘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테러, 질병,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위기,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 등의 절망적 소식들이 빈번하게 틈 뉴스로 전해집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앙의 소식들도 전해집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들을 좋은 지도자가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정치가들을 의지해보지만 번번이 실망하고 그들에게 분노하다가도 또다시 때가되면 새로운 기대를 합니다. 아마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셨음을 믿는다면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게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11월도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임진규 올림 -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12월 6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연말결산 모임을 가집니다.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도 걸음마다 주장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맞은편 오리동산

주소: 대구 남구 대명9동 688-3





## 여전히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9:1)

*And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 Gen 9:1, NASB*

노아홍수 이전과 이후 동일하게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는 심음과 거둢,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있는 반면, 대홍수 후의 추위와 더위가 추가된 저주받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가족에게 또 명령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고 하시며 인류 첫 조상에게 하신 명령을 대홍수를 건넌 대홍수 후 세대(post-Flood generation)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에게 명하신 청지기적 사명이 노아후손인 우리까지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물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생육해야 되고, 번성하여야 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다. 대홍수 이후에 보이는 주위 환경이 변화되어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을 지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인간은 여전히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후손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그 후손들은 그 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지도 않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자고 했으며, 또 하나의 목적으로 “흠어짐을 면하자”(11:4)고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뿐 아니라, 심판 후에도 재 확인하셨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다.



출처:

<http://www.lutheranlogomaniac.com/tag/pentecost/>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명령에 도전하며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강제로 "온 땅에 흠으셨다"(11: 8, 9).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날 각 나라대로 흠어져서 살고 있는 것은 충만하라는 명령에 우리 스스로 불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거역하였으며 그로 인해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의 강압적인 조치로 흠어진 것이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때의 모든 민족들은 흠어졌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으며(롬 3:2), 그 말씀대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고전 1:21) 그 흠어지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 마태 28:19) 이제는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성을 쌓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고 하신다. 또한 충만하라는 명령을 어겼던 우리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충만하라 명령하신다. 우리는 새로운 "충만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으로 통해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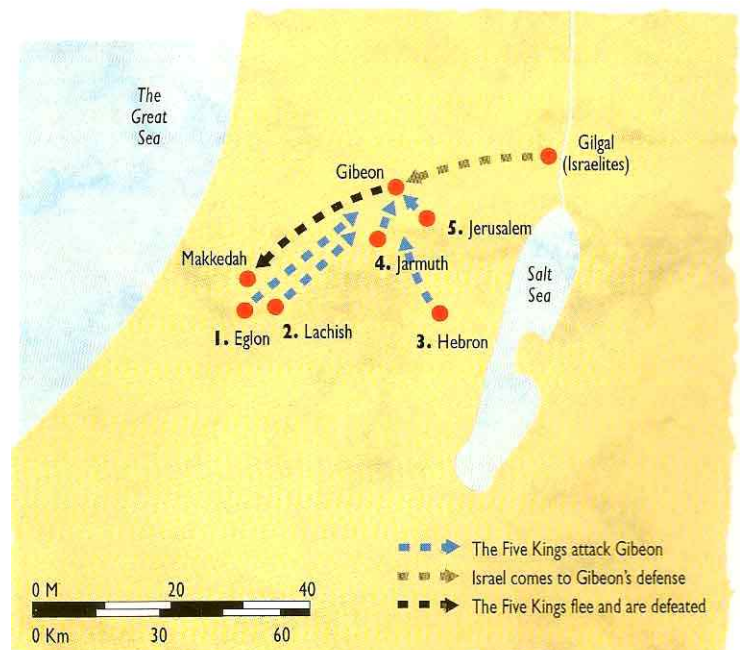
출처: <http://www.hisark.com> **창조**

## 해와 달이 아얄론에 머물다 (The Sun and Moon Stand Still At Aijalon - 여호수아 10:1-28)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완벽하게 잘 따랐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정복인 여리고에서는 승리가 쉽게 찾아왔다. 그러나 그 다음 아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적인 패배의 고통을 겪었다. 진영 안에 죄가 있었다. 아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 아간이 처형됨으로, 아이가 점령되었다. 근처에 있는 도시인 기브온은 두려워서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계교를 사용하여 정전협정을 맺었다. 오래지 않아 여호수아는 이 도시를 방어해 주어야만 했는데 여기에는 커다란 기적이 있었다.

### 백병전

여호수아의 날에는 고화력의 소총이나, 수류탄이나, 전투기 같은 것이 없었다. 전투시에 각 사람은 자기 적을 눈으로 대면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다 더 힘센 사람이 이겼다. 이것이 백병전으로써 전차가 발명되었을 때에도 군인들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싸웠다.



〈여호수아의 전략은 결국 다섯 왕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실 때, 적군이 얼마나 숙련되어 있느냐는 아무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전쟁에 직면하여 깊은 문제에 빠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조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농부와 목동이 망치, 도끼, 막대기 및 사냥칼 등을 들고 싸웠다. 그들은 말이 모는 전차와 같이 기동성 있는 장치와, 동이나 철로 만든 창과 방패 및 돌이나 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만든 강력한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팔레스타인인과 기타 가나안인들의 숙련되고 조직화된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군인은 일상복을 입고 전투에 나갔는데, 가나안 군인들은 금속 갑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나무나 가죽이 아니라 철이나 동으로 만든 방패를 사용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대를 작게 하여 훈련하는 것이다. 무거운 갑옷이 없었던 그들은 빠르게 이동했으며, 전차가 쓸모없는 언덕에서 싸웠다. 현명한 전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열쇠였다.

## 군사동맹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진격해 가며, 가는 도중에 만나는 모든 도시를 멸망시켰다. 이들 도시들은 도시 국가로 불렸는데, 많은 도시들이 실제로 그들 자체로서 작은 나라였다. 그들 혼자로는 여호수아와 대항하여 힘이 없었지만, 연합하면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강한 군대를 형성했다.

성경은 또 다른 거대한 동맹을 언급하고 있다. 아브라함 시대에 두 개의 커다란 왕들의 그룹이 서로 뭉쳐서 큰 전쟁을 치렀다(창 14). 그러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들 네 명의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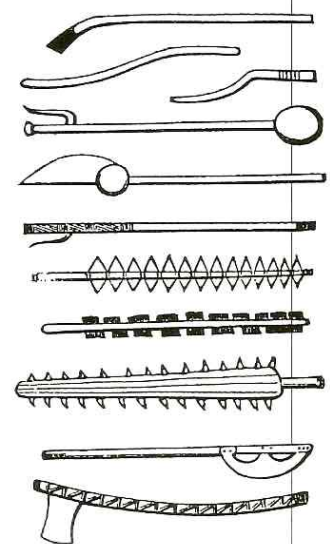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적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 여호수아 10:8-10, 새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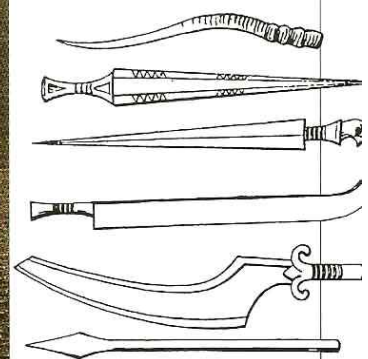


〈오늘날의 아얄론 계곡. 옴바(야파)로 가는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서쪽으로 15마일 거리〉



Various swords and other battle weapons from Old Testament times, drawn from scenes on ancient monuments.

The Valley of Aijalon today, about 15 miles west of Jerusalem on the road to Joppa (Jaffa).



〈구약 시대의 다양한 검들과 기타  
전쟁 무기들. 고대 기념비에서  
보고 그리다.〉 **창조**

## 다윗언약

### II. 주제연구

#### 2) 다윗 언약 ((The Davidic Covenant))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화며 재확인입니다. 이사야서 55:1-5을 묵상하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5:3-5)

-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만민에게 증거로 세워졌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실 그분은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율법의 모세 언약 즉 옛 언약의 지배 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교회와 은혜의 시대에 대한 일말의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이중적 조명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계획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5-6, 30:9, 33:14-16을 묵상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5-6)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30:9)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에스겔 34:23-24)

-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새의 즐거이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는 왕 중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왔고,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의 계보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음) 위의 성경구절에서 ‘다윗’은 죽은 다윗 왕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위의 언약들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구속주/초림주와 미래에 다시 오셔서 직접 왕 중 왕으로 다스리실 심판주/재림주에 대한 이중적 예언입니다.

사무엘하 7:12-16은 위에서 공부한 언약들과 함께 다윗 언약(Davidic Covenant)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12-16)

- 네 몸에서 날 자식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그 나라는 어떠한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



결국,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케 하실 그 나라는 역사적인 다윗의 왕국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와 천년왕국/천국을 예표합니다. (참고: 삼하 7:12-16은 솔로몬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14절 하반부와 15절은 분명히 솔로몬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솔로몬이 태어나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으면 심히 징계하리라. 그러나 그의 나라는 빼앗지 않고 영원히 세우리라. 따라서 다윗의 왕조와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자리이며, 그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앞장에서 많은 예언들의 이중적 또는 삼중적 조명(double or triple reference)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인용된 많은 예언적 언약들도 이스라엘 왕국, 초림주 그리고 재림주가 섞여서 조명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스크린은 많은 경우 입체영상(multi-dimension)입니다.) 다윗 언약(Davidic Covenant)은 아브라함 언약(Abrahamic Covenant)과 마찬가지로 비 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이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계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루신다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The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는 힘찬 선포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 시편 89:3-4과 누가복음 1:31-33을 읽으시고 다윗 언약이 어떻게 재확인되는가를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시편 89:3-4)

*"I have made a covenant with My chosen; I have sworn to David My servant, I will establish your seed forever And build up your throne to all generations." Selah. - Psalm 89:3-4, NASB*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1-33)

- 사도행전 13:22-23을 읽으시고 바울이 다윗 언약을 어떻게 재 증거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22-23)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 하였도다. (시편 132:17)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우리들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로마서 5:8, 에베소서 2:8-9). 즉, 구원은 철저히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언약을 공부해 나가면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하나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우리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 하리라. (이사야 43:25)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8-9)

이사야의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예언의 절정은 역시 이사야 53:5-6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이 가장 잘 요약된 구절이 요한복음 3:16이라면, 구약에서는 이사야 53:5-6입니다. 이 구절을 반드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6)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참조**

## 프레리도그 (Prairie Dog)

개쥐라고도 불리는 프레리도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프레리도그는 캐나다 중부에서 미국을 거쳐 멕시코 북부를 지나 로키 산맥 동쪽에 발달한 남북으로 긴 대평원(프레리, prairie)에서 살아요. 다리는 짧고, 발톱은 길고 날카로우며, 꼬리는 짧고 편평한 편이에요.

프레리도그는 촌락(town)이라고 불릴 대개 500마리 이상이 되는 무리가 함께 사는데, 이 촌락은 한 마리의 수컷에 의해 지배되는 십여 마리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포식자를 망보는 곳에 경비견 역할을 하는 프레리도그가 있어서 안전을 제공받게 되요. 만약 이러한 조직이 없다면, 프레리도그는 위험에 빠지기 쉬울 거예요. 이러한 본능은 타락 이후, 동물이 다른 동물을 사냥을 하기 전에는 필요치 않았습시다.

비록 이름에 도그가 들어가서 마치 개와 같은 종류인가 착각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다람쥐의 한 종류랍니다.

또 재미있게도 프레리도그는 서로를 알아본다는 표시로 이빨로 뽀뽀를 한 대요~ (혹, 이빨을 부딪히다가 아프게 부딪히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프레리도그는 색깔이 붉고 노란 색에서 갈색과 검은 색까지 다양하고 대부분 옅은 부분의 털과 색깔이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도 원래는 풀만 먹었는데, 현재는 풀도 먹지만 때때로 메뚜기와 같은 곤충도 먹으며, 천적이 다가오는 것이 환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풀을 짧게 유지합니다.

혹 가장 커다란 프레리도그의 촌락은 몇 마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나요? 놀랍게도 4억 마리 이상이 된다고 하니,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지요?^^\*

같은 종류로는 들다람쥐(ground squirrel)와 북미산 얼룩 다람쥐(chipmunk)가 있습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Prairie\\_dog](http://en.wikipedia.org/wiki/Prairie_dog)

프레리도그는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하는 행동을 보여준답니다. 이 피조물들은 많은 수가 집단으로 살기 때문에, 먹을 것과 굴을 나눔으로써 너무 적은 양의 식사와 매우 비좁은 장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크게 짖거나 짹짹대는 소리를 냄으로써 다른 프레리도그들에게 위험을 알린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Matthew) 7:12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가르친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황금률로도 잘 알려져 있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 새번역

"In everything, therefore, treat people the same way you want them to treat you,  
for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 NASB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우리 자신의 관심에만 집중하도록 이끌어서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도록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럼, 이번 달도 주님의 대접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마태복음 7:12**을 크게 소리 내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mailto: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